

## 장학금 7만 9천불, 남가주 차세대 98명에 전달돼

지난 두 달간 남가주 기독교계가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 발굴을 위해 모금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식'이 18일 오후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남가주·OC교협은 남가주교협에서 모금한 4만 1700불, OC교협에서 모금한 4만불을 합한 총 8만 1700불 중 광고홍보비와 행정사무

비 2700불을 뺀 7만 9000불을 98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고등학생 38명에게 각 500불씩, 대학생 60명에게 각 1000불씩 수여됐다.

장학금은 남가주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11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2013년 9월 기준) 중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지난 1년간 성적 이 GPA 3.5 이상인 학생들이 선발됐다. 또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출

석자, 한 가정 수입이 연간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우선권이 주어졌다.

인사 말씀을 전한 진유철牧사는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이 장학금은 액수를 떠나 믿음, 소망, 사랑이 담긴 귀한 물질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간증을 한 샘 김(남가주헤브론교

회) 학생은 "하나님께 죄송한 게 많은 저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앞선다"며 "제 아버지는 세상에서 좋은 물건을 주지 못했어도 가장 귀한 신앙심을 심어 주셨다. 아버지가 작은 교회로 가셨는데 앞으로 전도를 많이 해서 도와드리고 싶다. 또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예수님은 12분 30초

### 바울은 밤새도록

### "누가 옳은가"

한 신학생이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 "18분 내외로 설교할 것"을 TED에 출연해 주장하며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가장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의 예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 타탈척이라 알려진 이 학생은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안식교)에 속해 있으며 신학 학사를 안식교 계통 학교에서 마치고 현재 목회학 석사 과정 역시 안식교 소속의 앤드류스대학에서 하고 있다.

안식교는 한국에서는 이단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의 주요교단인 남침례회(SBC), 연합감리교회(UMC), 복음주의루터교회(ELCA) 등은 안식교의 교리적 차이는 인정하나 이단으로 보지는 않는다.

미국 주류 교파 혹은 주류 신학교 출신도 아닌 한 신학생의 발언에 미국교회가 반응하는 이유는 그가 전세계인들이 시청하는 유명 온라인 강연 사이트 TED에서 이 의견을 밝혔고 그 파급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현장 목회자들은 그의 이런 주장이 비성경적이며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보통 집중력은 18분 이상이며 제대로 가르침을 전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탈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12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다"고 응대했다.

타탈척은 유명한 복음주의 저술가이자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의 담임인 앤디 스탠리 목사의 책 "Communicating for a Change"을 인용해 "모든 설교는 단 한가지 주제만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자들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45분을 채우곤 한다"고 했다.

» 4면으로 이어짐  
김준형 기자



지난 두 달간 남가주 기독교계가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 발굴을 위해 모은 장학금을 전달하는 '차세대 리더 장학금 수여식'이 18일 오후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 월드미션대, 한인 신학교 최초로 ATS 인증 받아

### 산하 대학간 학점 교류 동일 학위 인정 혜택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가 지난 8일(목) 대학원 과정에 대한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신학대학원협의회)의 정회원 인준을 한인 기독교 대학교 중 최초로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ATS 신청 자격, 2011년 정회원 후보를 거쳐서 받게 된 것이다.

월드미션대는 2006년 기독교학연합회(ABHE) 정회원 인준, 2009년 기독교대학대학원연합회

(TRACS) 정회원 인준, 2013년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정회원 인준을 얻게 됐다.

ATS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풀러, 탈벗, 아주사피서피, 클레어몬트 등 북미주 지역 신학대학원이 가입한 학력인증기관으로서 신학교육기관들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권위있는 단체다.

이번에 월드미션대의 정회원 자격 취득은 이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과 대학원 학위프로그램들이 ATS에 가입된 북미주 신학대학원들과 동일하게 인정받게 됨을 의미한다.

학교 측은 15일 오전 학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ATS 소속 학교들과 학점 교류 및 동일한 학위 인정 혜택을 받으면서, 보다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게 됐다. 또 본교의 목회학 석사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미국 내 주요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학교의 발전과 건전한 신학을 견지하기 위해 한국 복음주의신학교협의회와 협력하며 현재 새로운 교육방법인 온라인 교육을 위해 세계 곳곳에 있는 저명한 교수들을 초빙했다. 또 디지털 도서

관을 구축했으며,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회와 남가주신학대학원도서관협의회(SCATLA)에 가입돼 있다. 아울러 현재 연방 및 주정부 학비 지원과 학생용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월드미션대는 1989년 개교 이래 2013년 22회 졸업식에 이르기까지 62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중 목회 현장에서 300명, 선교지에서 91명이 사역하고 있다. 현재 재학생은 총 270여명. 한편 학교 측은 오는 9월 7일 본교 강당에서 ATS 인준 감사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ASE**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 한인신학교 최초 ATS 정회원 인준

# 1<sup>st</sup>

**ATS란?** ats  
 미연방 고등교육인증협회(CHEA) 소속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탈벗, 클레어몬트, 아주사 등 미국·캐나다에 260여 학교 멤버가 소속되어 있는 신학대학원 최고 협의체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ATS의 정회원 인준을 받음으로 한인신학교 최초로 미국 신학교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2013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ATS 인준 감사예배**

- 일 시: 2013년 9월 7일 오후 6시
- 장 소: 월드미션대학교 채플(6층)

**모집학과 "원서모집마감 8월 30일(금)"**

|      |  |   |
|------|--|---|
| 학사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서신학과(BABS)</li> <li>● 음악학과(BAM)</li> </ul>                         | 기독교 상담학과(BACC)  |
| 석사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학과(M.Div)</li> <li>● 기독교 상담학과(MAC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학과(MAT)</li> <li>● 음악학과(MAM)</li> </ul> |
| 박사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회학(D.Min)</li> </ul>   |   |
| 단기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FCC)</li> <li>● 유아교육 원장 과정 / 유아교육 교사 과정(ECE)</li> </ul> |   |

**재정안내**

|       |   |
|-------|---|
| 학생 응자 | 학생 응자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에 가능하며, 졸업 후 낮은 이자로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음. |
| 펠 그랜트 |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값을 필요 없음.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E-mail: wmuinfo@wmu.edu Website: www.wmu.edu

**입학문의**  
 213.388.1000 Ext.106  
 E-mail: admissions@wmu.edu  
 Website: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증기관

ABHE 정회원 | ats 정회원 | TRACS 정회원

# '좀비 열풍'에 투영된 이 시대의 불안과 그 대안

## [좀비와 종말(上)] “위기 의식의 결과물이자 폭력 정당화 수단”

‘존재하지도 않지만 죽지도 않는 녀석’이 나타났다. B급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좀비’가 문화계 전반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

그 절정은 전 세계에서 개봉한 최신작 블록버스터 <월드워Z>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관권 경쟁’으로 화제가 됐다. 앞서 올해 초 개봉한 <웜 바디스>에서는 젊은 남성의 뇌를 먹은 좀비의 ‘로맨스’가 펼쳐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최근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나 예능, 웹툰 등 문화 콘텐츠는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세상을 ‘들었다 놔다’ 하는 이 ‘옴몰’을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

### ◆ 좀비의 탄생 그리고 변주

‘좀비(Zombie)’는 원래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의 부두교 주술사가 마술적인 방법으로 소생시킨 시체들을 일컫는 말로, ‘살아있는 시체’라는 형용 모순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단어는 현재 컴퓨터 해킹의 매개물(좀비PC)이나 특정 정치인영을 빗대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뉴욕에서 있었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에서 탐욕스럽고 부패한 금융인들을 비꼬는 의미로도 등장했다.

좀비는 비록 허구의 존재이지만, 주로 영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각인됐다. 최초의 좀비 영화는 1932년작 <화이트 좀비>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의 모습은 1968년 조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좀비는 △살아있는 사람을 먹고 △자신들끼리는 죽이지 않으며 △좀비를 없애는 길은 머리를 공격하는 것 뿐이고 △전염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징을 갖게 됐다.

영화평론가 강진구 교수(고신대)는 “좀비는 보통 부두교에서 나왔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할리우드가 이를 불러내 만들어냈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는 영화에서 창조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할리우드에서는 A급과 B급을 나누는 기준이 작품성이 아니라 제작비인데, 공포물은 대부분 저예산으로 만들어진다”며 “적은 돈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고 관객들을 불러모



가장 진화한 좀비가 나타나는 영화 <월드워Z>.

으기 가장 쉬운 것이 공포물이고, 좀비는 이러한 공포물 중 가장 늦게 출현한 대상”이라고 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만화·영화 등에 조예가 깊은 조휘용 사무국장(10대들의동지, 울산교회)은 “B급 문화에서 주로 소비되던 좀비를 일본 쪽에서 게임으로 재활용했고, ‘바이오 하자드’나 PS용 게임 등으로 인기를 끌자 미국으로 건너가 ‘데지던트 이블’이 출시됐다”며 “불을 꺼놓은 채 혼자 이블 속에서 움짱움짱하는 게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영화화됐고, 나름대로 검증이 끝나 영화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 ◆ 영화계가 ‘캐스팅’한 좀비 날이 갈수록 진화하다

조 목사는 “비슷한 이미지의 드라큘라는 문학에서 왔지만, ‘좀비’는 돈이 될 가능성이 있어 영화계로까지 넘어온 사례이고 대표적인 것이 <월드워Z>”라며 “원래 좀비는 뛰지 못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스펙터클을 위해 뛰어다니는 좀비들이 등장했고, <웜 바디스>에서는 좀비에게 ‘마음’을 주어 여성을 사랑하는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감염된다는 점에서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진격의 거인’과도 연결이 가능

하다”면서 “드라큘라는 ‘인간보다 뛰어난 소수’로서 엘리트적 개념이라면, 좀비는 ‘나’를 제외한 다수인 데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끝까지 몰고 늘어진다든 점에서 영화적으로 매력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진구 교수도 “<월드워Z>만의 특징이 있다면, 예전에는 바이러스가 퍼져서 한 나라에서 질병이 끝났지만 이제 세계 어디서든 순식간에 퍼질 만큼 연결된 사회 구조를 갖게 됐다는 것”이라며 “영화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데, 이는 공포의 대상에 대한 문제를 전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잘 알려진 에볼라 바이러스나 조류 독감 등이 전 세계 공통의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런 사회환경적 위기감이 좀비를 통해 극대화됐다는 것.

강 교수는 또 “상업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좀비’를 악(惡)이라 규정하기 때문에 좀비를 죽이는 것에 죄책감보다는 상당한 쾌감을 느낀다”며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는 폭력에 대해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할리우드에서는 ‘폭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비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영화 속에 폭력 장면이 많을수록 관심을 끌기 쉬운데, 때로 나오고 죽

지도 않는 ‘좀비’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도 무리가 없다는 것.

그는 “‘좀비’를 하나만 죽이는 경우는 없고 기분이 수백 단위인데, 이처럼 ‘좀비’가 영화에서 마치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듯한 잘못된 쾌감을 안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며 “‘좀비’가 현대 사회의 위기 의식을 드러내지만, 상업적으로는 실제하지 않는 대상을 하나의 ‘사냥감’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 ◆ 좀비를 불러낸 사회 이를 치유해야 할 교회

‘좀비(월드워Z·웜 바디스)’, ‘이상기후(실국열차)’, ‘종말(엘리시움)’ 등 영화계에서는 이러한 ‘극단적 설정’이 계속되고 있다.

강진구 교수는 이에 대해 “일단 영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현실 사회에 대한 불안과 위기 의식의 결과물”이라며 “이상 기후나 핵에 대한 공포, 테러 등의 문제들이 항상 세상에 존재하다 보니 불안하고, 그러한 심리를 ‘종말’을 통해 드러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좀비’의 경우 ‘아무리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에 대한 공포가 투영됐다고 했다.

조휘용 목사는 “지금 우리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완전하게 공개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까놓고 얘기하면 돈이 될 게 별로 없어서 좀비가 나온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듯 글 하나만 SNS에 잘못 올려도 단 한 번에 몰락해버릴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미지의 두려움이 좀비로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사역자 신상언 선교사(낮은울타리는)는 “영화 제작자들은 대박이든 쪽박이든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명을 바쳐 영화를 기획하고 만들어 낸다”며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어떤 감각 같은 게 뛰어나 미래에 대한 예견력이 있다고 평소 생각해 왔는데,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중 하나인 불안과 절망감을 감독들이 잘 포착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강진구 교수는 “영화에서 사회적인 위기와 종말을 다루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해결 방안이 문제”라며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위기와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이해하고 교회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월드워Z>에서는 좀비를 관찰하면서 질병에 걸린 이들이 잘 보지 못함을 파악하고 주인공이 자신의 몸에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이를 퇴치하는 등, 그 대안이 ‘과학’이었다”며 “기독교는 이러한 ‘과학 중심적 사고’를 가진 세속적 대안 앞에서 훨씬 더 수준이 높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영속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질적 대안’에 대해 강 교수는 “영화에서는 ‘왜 좀비가 나타났는가’를 말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건강성 즉 자연과 생태계, 환경 등을 하나씩 지켜 주신 ‘문화 명령’에 따라 잘 보호하고 지켜 나가야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서 질병이나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책무라는 것.

강진구 교수는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추세는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므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통해 불안을 이겨내고 참된 생명을 향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대용 기자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 \$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며,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당신의 교회에 새신자가 안 오는 이유 8가지

## 많은 교회들 “설마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오겠어” 태도

만약 당신의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왔다면 기분이 어떨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우 기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그 성도가 사실은 다른 교회나 이단에서 파견된 첩자라면 어떨까? 기분이 불쾌하거나 심지어 걱정도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일을 꼬투리 잡고 정보를 캐러 온 첩자에게도 큰 은혜를 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아닐까?



척 롤리스 박사

남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이자 이 학교 빌리그래함선교전도대학원의 학장인 척 롤리스 박사가 “교회 첩자들의 8가지 고백”이란 칼럼을 발표했다. 교회의 성장과 목양 등 각종 문제를 컨설팅 해 주는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그는 “우리가 당신의 교회로 보내는 첩자는 좋은 첩자다”라면서 “교회가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다.

그는 “약 10여년 간 컨설팅을 원하는 교회의 초청을 받아 각종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므로 지금 공개하는 8가지는 그 교회들에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 교회들이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첫째는 교회 웹사이트가 너무 지루하고 쓸모 없으며 업데이트가 늦다는 것이다. 롤리스 박사의 팀의 확인에 따르면, 많은 교회들의 웹사이트에는 심지어 예배 시간조차 없는 곳이 많았다. 당신의 교회에는 있다고 안심하지 마라. 지도가 틀린 교회나

전화번호가 틀린 곳도 많았다.

둘째는 교회가 별로 친근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의 팀은 예배인도자가 “서로 인사합시다”라고 인사를 유도할 때, 몇 명이나 서로 인사하는지 그 숫자도 세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성도들은 처음 얼굴을 보는 그의 팀원들에게 대부분 전혀 인사하지 않았다. 아마 다른 불신자들도 이런 교회에서는 전혀 인사를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셋째는 교회의 시설이 잘 정돈되지 않았다. 교회의 간판이 운전 중 읽기 쉽지 않았고 새신자 전용 주차 공간이 있더라도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찾기 쉬운 위치는 아니었다. 교회 입구를 찾아 헤매야 하는 경우도 많았고 교회 안에서 길을 잃어 버리기도 했다.

넷째는 교회가 방문자들을 위해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설마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오겠어”라는 태도로 새신자 주차 공간, 새신자

환영 공간이 없는 교회가 있었으며 새신자 환영 공간에 봉사자가 한 명도 없이 텅 빈 곳도 많았다.

다섯째는 어린이들이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방문한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을 맡기는 시설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지 못하겠거든 자녀들을 차일드케어나 주일학교에 맡기지 말라고 했고, 많은 팀원들이 맡기지 않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만큼 어린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단 뜻이다.

여섯째는 교회의 찬양에서 발견됐다. 각 교회마다 예배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교회에서는 연주자들의 연습이 부족했고 또 찬양곡이 따라 부르기 어렵거나 인도자가 열정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일곱째는 설교다. 자신의 교회를 컨설팅 해 달라고 초청한 목회자에게 “당신의 설교가 별로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무시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었고 복음을 매우 고루한 내용으로 전하고 있었다.

마지막은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점이었다. 예배를 마친 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뭘 해야 할까?”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모호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즉, 예배의 전과 후의 차이가 없었다.

롤리스 박사는 “이런 문제를 놓고 당신의 교회를 평가해 보라”고 조언하며 글을 마쳤다.

김준형 기자

## 선교편지

### KCCC USA

## 복음 들고 13개국에 나가 성령역사 체험

해마다 두달간 진행되는 여름 선교. 올해는 국내를 비롯해 멕시코, 동아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중앙아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에 한국대학생선교회(KCCC USA) 간사와 학생 490여명이 참가했다. 익숙지 않은 환경과 기후 조건 속에서도 이들은 5천5백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이 가운데 총 1041명이 예수를 영접했고, 268명이 성경공부와 양육으로 연결됐다.

특히 동아시아나 무슬림 국가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단기선교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게 했다.

“믿음으로 동아시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한 어느 날, OO을 만났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의 친구 2명을 소개시켜 줬다. OO는 비록 예수님을 영접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친구들 앞에서 수줍어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그가 들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OO의 두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샌디에고 주립대 4학년 존리)

존리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공산권 국가에서의 선교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보게 됐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복음을 접한 5천5백여 학생들이 십년, 이십년 후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을까? 이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다. 앞으로도 선교를 위한 지역교회들의 꾸준한 관심

과 협력을 기대하는 바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KCCC USA가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선교전략 키워드는 ‘대학’이다. 전 세계 인구 중 1%가 대학생이고 이들이 장래 각 나라와 민족의 리더십으로 부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행전이 마무리되는 KCCC는 현재 뜨거운 열정 가운데 새로운 도전 앞에서 서 있다. 올해 8월부터 KCCC LA 신입 대표로 세워진 이영복 목사에게 앞으로의 각오와 사역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2013-14년 KCCC 사역의 주제는 ‘페이스북(Faithbook)’입니다. 월 10억6천만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은 진짜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KCCC는 올해 ‘Faithbook’이란 주제에 맞게 모든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사역에 헌신된 많은 KCCC 간사팀과 열정적인 학생 리더들이 있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 통해 캠퍼스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그의 얼굴에서 불꽃같은 주의 사역자의 믿음이 느껴진다. 그가 전한 한마디가 오래 가슴에 남는다.

“Win the campus today! Win the world tomorrow!”

## 미군 내 종교 자유 점점 위축되나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과연 어디까지 보장이 될까? 우리는 요즘 자기 집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했다고 감옥에 갇힌 목회자, DMV 앞에서 성경을 낭독했다고 체포된 목회자, 동성애는 죄라는 뜻을 들고 있다가 집단구타 당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곤 한다.

최근에는 미 육군 군목의 보좌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죄”라는 글을 썼다가 군사재판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다. 개인이 신앙적 동기를 갖고 페이스북에 쓴 글조차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유를 침해하려는 사람들은 해당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에게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속 직장이나 단체를 조직적이며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이 보좌관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가르치려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하

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신다. 나는 동성애에 관해 관찮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지쳤다”고 글을 썼다. 이 글에서 그는 동성애자를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으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목회자”에 관해서만 썼다.

그는 자신의 공간에 자신의 신념에 의거한 글을 썼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역풍은 직접적인 페이스북 상의 반박이나 비판이 아닌 의외의 곳에서 왔다. 그 글을 본 누군가가, 그가 근무하고 있는 군대에 그를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군은 그 글을 당장 삭제하라고 강요했다.

이 보좌관의 상관은 그에게 “군대 내에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하며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난 이 일

과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고도 했다. 여군인 그는 6년간 군대에서 복무했으며 아프간에도 파병된 바 있다. 또 그의 남편은 주방위군으로 일하고 있다.

종교자유군목연합의 론 크루 디렉터는 “군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종교 자유를 포기해야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 문제와 관련해 이 여성이 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최근에는 알래스카의 미 공군부대 군목이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명언을 이용해 칼럼을 썼다가 무신론자들의 공격을 받고 그 글을 삭제당하기도 하는 등 미군 내의 신앙의 자유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영신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원고한 통증(요통, 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등)의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태바 선교회원회 부설 ·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 213.487.0691

---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진절하게 웃음으로 상담에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 (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WIA, Childcare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 남가주교협, 광복절 68주년 기념예배 “하나님께 감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14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광복절 기념 연합기념예배를 드렸다. 회장 진유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가 지난 14일 오후 광복절 68주년을 맞아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연합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사회 박호우 목사(수석부회장), 대표기도 홍순헌 장로(남가주장로협 회장), 설교 진유철 목사, 특별기도, 축사 김성훈 목사(미주광복회 고문), 신연성 LA총영사, 축도 홍영환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회 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진유철 목사는 설교에서 “기독교

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고,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다. 특별히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조국의 광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목사는 또 “광복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며 “조국의 광복을 기념하며 참된 빛을 되찾게 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넘쳐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협 부회장이인 황의정·김성민·지윤성·정우성 목사의 인도 하에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일 △미국의 신앙부흥과 영적 각성 △이민교회의 부흥 △동포사회 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한 특별기도가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그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은 17분 29초,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대학교 졸업식 강연은 14분 45초, 윈스턴 처칠의 명연설 “우리는 해안에서 맞설 것입니다”는 12분 22초라고 밝히며 “만약 인상적인 설교를 하고 싶다면 40분, 45분 동안 설교하라. 그러나 기억될 만한 설교를 하려면 18분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휴스턴침례교회의 윌리스 헨리 협동목사는 “상식적인 토론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서부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수시간 동안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다. 그들은 목말라 있다”고 증거했다.

또 “유럽에서는 18분 이상 설교하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18분 설교는 오늘날의 청중들에 대한 슬픈 발언이다. 성도들이 주의력결핍장애에 걸렸는가”라고 일갈했다.

시애틀안디옥성경교회 켄 허쳐슨 목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12분 30초일지 몰라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한 설교는 밤 늦게까지 계속돼 유두고란 청년이 창에서 떨어져 죽기도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살린 후 또 계속 설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크리스천은 복음을 비신자들에게 전해야 한다. 그러나 주일설교는 불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세워 가는 것이다.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친근한 교회여야 하지만 불신자에 의해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배우 허준호 토크콘서트

오는 30일 은혜한인교회서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가 오는 8월 30일(금) 오후 7시30분 동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배우 허준호를 초청한 가운데 <은혜나누기> 토크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에서 허준호는 원로 배우 허장강의 아들로 부친의 뒤를 이어 배우가 된 사연을 비롯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된 간증을 나눈다.

교회 측은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번 토크 콘서트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714) 446-6200

## 교회의 어른인 목사와 장로, 목양의 본질은?



미주 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 관계자들이 오픈을 앞두고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 18차 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 10월 초 나성영락교회서 오픈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장로의 본질 회복 프로젝트’ 이슈를 내건 ‘2013 미주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초 뉴저지와 LA 지역에서 잇따라 열린다.

18차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LA의 나성영락교회(김경진 목사)에서 10월 8-9일 열린다. 17차는 뉴저지의 동부소망장로교회(박상천 목

사)에서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컨퍼런스에 앞서 행사 주최측인 국제목양사역원 원장이자 호산나교회 원로목사인 최홍준 목사는 13일 오전 나성영락교회에서 관련 취지 및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홍준 목사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서 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유익을 절감하고 있다. 먼저

는 목사와 장로들이 바뀌고 있다. 현재 장로들의 사역을 보면 90%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장로들이 점점 행정과 정치로 치우쳐 목양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컨퍼런스를 통해 ‘목양’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니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 최근 부산에서 신천지로 인해 63개 교회가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는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목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나는 청소년 때부터 교회 분열을 봐 왔다. 장로교가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되는 것을 봐 왔다. 이 분열의 중심에는 목사와 장로가 있다. 장로들이 세워지면 정치와 행정에 집중하고 교회에서 기독교를 휘두르게 돼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사실 목회자와 장로의 본분은 양을 보살피는 것이 본질이고, 행정은 비본질이다. 어떤 부분

에선 장로가 목회자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며 “둘 다 기쁨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장로들이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 목사를 모집하는 것을 보면 시험 듣기 딱 좋다. 채용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이 컨퍼런스를 다녀간 교회 대부분의 경우 영적 질서가 잡히고 장로들도 현재 기쁘게 사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강사는 최홍준 목사, 홍민기 목사(호산나교회), 고현권 목사(어바인메델란인교회 부목사), 김명섭 목사(호산나교회 부목사, 국제목양사역원 총괄)이 나선다. 목사와 장로를 대상으로 하며, 장로로 피택된 직분자 및 침례교회의 경우 안수집사와 권사도 포함된다. 모집인원은 120명이며 등록기한은 동부 9월 30일까지, 서부 10월 7일까지다. 등록금은 120달러. 인터넷상에서 등록 가능하다. >관련 문의: (949) 751-8507, (201) 767-7728 >www.pastoralministry21.com

토마스 맹 기자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열극촉수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에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마드윈)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세상의 중심에서 신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갑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학사(B.A.), 교역학석사(M.Div.) 과정

가을학기 개강일 : 8월 26일(월)  
M.Div. 온라인 강의 전격 개설 (2013년 가을학기부터)  
(본교는 학점제로 운영되며, 총 98학점 중 48학점을 온라인 강의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ESL 과정**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진 현지인 전문 강사들과 각 과정별 담당 교수제를 통한 지도, 원어민 대화 상대자 배정을 통해 최고의 실용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Level Test 및 설명회 : 8월 19~22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오후 3시  
가을학기 : 9월 2일(월) ~ 12월 13일(금) (총 15주)  
학비 : 학기당 \$2,200 (1년 3학기제)

**입학문의**

입학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 (www.ptsa.edu) '입학정보실' 참조.  
입학 관련 문의 : 미국 Tel. 1-562.926.1023, Ext. 300 / E-mail : office@ptsa.edu  
한국 Tel. 010-6612-1165 박정환 목사

**2013년 가을학기 공개 강연 및 사경회 일정**

| 날짜         | 시간  | 강사   | 강연 주제   |
|------------|---|--|---|
| 9월 11일(수)  | 오전 11:00 ~<br>오후 12:30                              | 강요섭 박사<br>Retired Missionary Professor<br>(Zomba, Malawi & St. Petersburg, Russia)<br>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S.T.D. | 먼저 힘 센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br>현대 사회 속 익명 문화에 대해 말하다   |
| 9월 23일(월)  | 오전 11:00 ~<br>오후 12:30                              | 정성욱 박사<br>Denver Seminary, 조직신학 교수<br>University of Oxford, D.Phil.  | 삼위일체의 체현 :<br>전자구적 관점에서 본 삼위일체 신학과 영성   |
| 10월 3일(목)  | 오전 11:00 ~<br>오후 12:30                              | 우중학 박사<br>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br>Yale University, Ph.D.   | 그리스도인이여, 과학을 풀어라  |
| 10월 29일(화) | 미정  | 사회 : 강우중 교수 (본교 교수)<br>발제 1 : 미정<br>발제 2 : 미정  | 교회, 동성애에 대해 말하다 :<br>발제 1 : 동성애 실태 및 일반의 이해<br>발제 2 : 동성애 확산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대안 제시 / 질의응답 |
| 11월 5일(화)  | 오전 9:30 ~ 11:00<br>오후 1:30 ~ 3:00<br>저녁 7:00 ~ 8:30 | 김규동 목사<br>일본 요한침례교회 담임<br>일본에서 44개 교회 개척<br>현재 3,000명 출석하는 일본 최대 교회로 성장시킴  | 미정  |

※ 본교가 가을학기에 제공하는 강연과 사경회는 모두 공개로 진행됩니다. 본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을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성령이 임하시기 위하여

사도행전 10:24~4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지역이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곳에 파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령지역은 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한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가이사라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점령군 파견대장입니다. 그래도 그는 망한 나라의 하나님을 상당히 흠모하고 연모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늘 회당에 들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길들여져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적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 되는 일도 없고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든 형편이었는데, 로마 군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보내주는 고급스럽고 넉넉한 식량과 옷가지로 험벗고 굶주리는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 애썼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험벗고 굶주릴 때에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나누며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정해놓은 기도시간인 제구시(지금의 오후 3시)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고 구제하며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니 네가 사람을 용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 그가 내 말을 네게 전해줄 것이다. 그는 바닷가 피장(가축을 가지고 생활 도구를 만드는 사람)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용바는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인 지중해 서해안에 있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에 그는 즉시 자기 수하 중 경건한 사람 둘을 보내어 시몬을 모셔오게 합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제 옥실에 지붕에 올라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를 때어 땅에 드리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합니다.

이것을 '엑스타시스(Ekstasis)'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관적 계시, 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장면은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광경, 출현, 환상'을 의미합니다. 큰 보자기의 네 귀퉁이를 매었다는 것은 동서남북 세상 전체를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행10:4)"고 합니다. 이에 두 번째 말씀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말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을 후에 이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드로가 의식개혁을 할 수 있도록 '엑스타시스' 방법으로 깨우쳐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의 혈통에 유대인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어도 안되고 결혼을 해도 안되며 서로 어울릴 수도 없으며, 구약시대에는 굶이 갈라진 짐승, 새김질 안하는 짐승들은 속되고 가증된 것으로 여겨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기 백성만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의 의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전개되는 시발점에 선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이 구원시키실 대상이 유대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 그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정해지는 법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상당히 궁궁해할 때 문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로마사람들이 그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었느니라(행10:19-20)"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두 사람인데,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게 하신것은 베드로를 모셔다가 고넬료와 함께 있는 택하신 사람들로 성령을 받게 하셔서 그들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두 사람을 만나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를 묻습니다. 22절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고 답합니다. 이들은 로마군대의 군인들로 그들이 보기에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나이 들어 불품없어 보였을 것이며 그의 영적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하대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는 이방인과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날의 환상을 본 이후로 선민사상이 허물어진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을 청하여 잠을 자고는 이튿날 아침 용바에서 은혜받은 여섯명과 함께(행11:12)가 이사라로 떠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갔을 때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그와 가까운 사람들, 자기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벌떡 일어나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라하시기로 당신의 초청을 사양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슨 일

로 여기로 불렀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고넬료는 자신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했음을 말하며 환영의 말을 전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전달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두 모여 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34절 이하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베드로는 '엑스타시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고 합니다. 36절에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셨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37-38절에서 두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민의 섭리는 반드시 영적 구원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 성령받은 목자와 죄인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인도하심을 받고 목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깨어지는 회개 역사가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은 참으로 불행한 곳입니다. 마가복음 9:48-49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조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19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눅16:23-26)"고 음부에 대해 묘사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이 음부보다도 더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회개하여 성령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것은 죄값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이 사기시는 회개로 철저히 자기 죄를 애痛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을 때 비로소 죄값인 지옥행벌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21에서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게 해주시기 위한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셨다고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가항력적 은혜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토록 하나님을 사모했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구제와 기도에 힘쓰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얻게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12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의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합니다. 하늘은 세례요한 이후 하늘나라를 욕심 내고 그곳을 차지하고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분들의 신앙은 태만하고 세상 허욕과 허세, 험기와 정욕에 차있고 물질적인 것에 뜻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가 메마르고 인생이 삭막하게 심령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이 풀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욕신의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형편없이 메마르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45-4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인하여 놀라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이는 말하는 것도 들으면서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사107:9)"는 말씀이 고넬료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듯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실 것이며 굶주린 심령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 한국 선교 설교  |                      |                 |           |        |                       |
|---|----------------------|-----------------|-----------|--------|-----------------------|
| CBS TV  | 목요일 오후 2시            | CTS TV          | 금요일 오전 6시 |        |                       |
| 크리스천투데이   | 7면 설교                |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           |        |                       |
| 경북기독신문  | 3면 설교                | 기도원연합신문         | 3면 설교     |        |                       |
| 해외 선교 설교  |                      |                 |           |        |                       |
| COX TV 워싱턴DC.   |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CTS TV    | 수요일    |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
|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           | 토요일    |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
|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                 |           |        |                       |
| AMI310 기쁜소리방송   |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미국        | 5면 설교문 | 온라인 칼럼설교              |
|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                 | 미국        | 기독일보   |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
|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br>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br>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br>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                      |                 |           |        |                       |

#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9월 9일 개강**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웃자



설 동 욱 목사  
목회자사모신문 발행인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웃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15초만 박장대소해도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치매가 예방되고 수명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잘 웃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나누고 싶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누면 배가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웃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마음을 갖게 되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어렵다고들 아우성이지만, 그럼에도 호황을 누리는 기업이 있다. 경영에 웃음을 도입하여

편 경영을 하거나, 편 리더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다. 어떤 기업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신나게 춤출 수 있

도록 DDR을 설치하는가 하면, 사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경영주의 노력이 행복 윤희유가 되어 사기를 높이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신나게 일하고 신나게 즐기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항상 기뻐하는 일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 이요, 세상을 이길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길이다.

뿐만 아니라 유쾌한 에너지가 넘쳐나서 소통이 원활해지는 길이다. 웃음을 통해 암 환자가 고침을 받고, 웃음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다. “웃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되자.

##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4)



이 영 두 목사

예수를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면 심령이 먼저 새롭게 변화 받아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어디에서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지혜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좀 아둔한 사람도 만나게 된다. 필자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다양하게 사람을 창조하셨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아둔한 자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독자들들과 함께 영적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롬 6:6; 엡 4:22-24)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자면 지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학문을 깨닫는 부분이 넓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자는 그 시대에 필요한 신상품을 많이 개발해 목돈을 벌 수 있다.

이처럼 지혜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 쓰이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문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바울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했다. 바울이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살라는 것이다.

지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세상적으로 사용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주신 자를 위해, 주신 자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일천번제를 드린 후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으셨다. 이 때 솔로몬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함에 있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했다.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덩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지혜는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을 가리는 재판 과정에서도 사용됐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지만 자신을 위해 사용함으로 말년에 부끄러움을 당하곤 한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적지않은 이들이 비리와 탐욕에 눈이 어두워 부끄러움을 당했다. 지혜를 세상적으로 사용한 결과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면 분명 존경받는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터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역시 돈과 여자, 명예로 인해 넘어진 자들이

있다. 지혜를 세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모름지기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을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속적으로 지혜를 다루게 되면 군림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급기야 교회를 통한 ‘자기 왕국’ 건설에 마음을 두게 된다.

성도들 역시 세속적으로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교회 지도자 앞에서 갖가지 모습으로 아양을 떨게 된다.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더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선 각자에게 물으실 것이다. “네게 준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말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혹여 지금까지 받은 지혜를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다.

필자 역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늘 기도한다. 머리에서 수시로 작동하는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을 위한 지혜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아직도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 일어나는 현상이다. 세상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 수 있다. 이것이 영적 성숙된 자의 모습이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자.

글=이영두 목사  
호크마신학대학교(hokmahcollege.com) 학장 역임  
엘에이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역임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호크마신학대학교 영성신학박사

##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 Missionary Professor)



##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 English (초급 영어)

▷What's the matter with you?  
무슨 일이 있습니까?

▷I have a toothache.  
이가 아프네요.

▷What's the matter with her?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She has a backache.  
그녀는 허리가 아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r brother?  
당신 형한테 무슨 일 있나요?

▷His legs hurt.  
다리가 아프답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r sister?  
당신 여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나요?

▷Her throat hurts  
목이 아픕니다.

### English (중급 영어)

The next day, John was there again, and two of his followers were with him. When he saw

Jesus walking by, he said, "Here is the Lamb of God!" John's two students heard him, and they went with Jesus. When Jesus turned and saw them, he asked, "What do you want?" They answered and asked, "Rabbi, where do you live?" The Hebrew word "Rabbi" means "Teacher." (John 1: 35-38)

이튿날 요한은 다시 거기 있었으며 그를 따르는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어린양이 있도다”라고 했다.

요한의 두 제자들은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와 함께 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는가?”고 물으셨다.

그들은 대답하며 묻기를, “랍비여, 당신은 어디에서 사십니까?”하고 물었다. 히브리어로 ‘랍비’란 ‘선생’이란 뜻이다.

<요1:35-38>

### English (고급 영어)

A fool does not see the same tree that a wise man sees. A truth that is told with bad intent beats all the lies you can invent. Active evil is better than Passive Good.

Energy is an eternal delight, and he who desires, but acts no, breeds pestilence. Eternity is discovered in love with productions of time. (William Brake)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보는 똑같은 나무를 볼 줄 모른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한 진리는 당신이 착안한 모든 거짓말들을 물리친다. 행동하는 악은 받아들이기만 하는 선보다 낫다.

에너지는 영원한 기쁨이다. 그리고 욕망은 있으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쁜 병을 키우게 된다. 영원한 시간의 생산으로 사랑 안에서 찾게 된다.(윌리엄 블레이크)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호수 교수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철학자가 말하는 ‘신앙과 신학’, 그리고 ‘질문과 대답’

## [인터뷰]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펴낸 김용규 선생 (1)

신학은 애초부터 질문에 대한

복음적 응답 과정서 생겨

복음이 시대와 상황에 대해

말하려는 질문 막아선 안 돼

-하지만, 이 시대 가장 '핫' 한 철학자 지젝은 얼마 전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철학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지만, 답하는 사람이 아니' 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절반만 옳은 말이지요. 철학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지만 답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이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질문을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에 답을 하는 방법입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을 개발한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예컨대 정의가 무엇이고 용기가 무엇이라고 직접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을 통해 무엇이 정의가 아닌지, 또 무엇이 용기가 아닌지를 낱알이 밝혀내지요. 다시 말해 진리가 아닌 것들을 하나씩 가려내는 것입니



김용규 선생은 '인문학적 관점'으로 글을 쓴 것에 대해 "어떤 종교의 주장을 그 종교의 관점과 언어로 설명하는 말이나 글은 그 종교의 구성원들에게는 은혜로우나, 자폐적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종교 밖의 사람들에게는 거북스럽게 심상"이라며 "그러나 종교적 담론도 인문학적 관점과 언어로 설명되면 덜 은혜롭긴 해도 거북스러움이 덜한데, 이것이 제가 의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다. 그럼으로써 한 걸음씩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플라톤이나 칸트의 경우, 질문에 답을 해 가면서 진리에 다가가는 방법을 사용했지요. 예를 들어 칸트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나'라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다음, 이에 대한 답으로 각각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이라는 대작들을 남겼습니다.

결국 철학이란 끊임없이 질문하고 부단히 대답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는데, 지젝은 소크라테스적 방법론을 택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

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철학자가 질문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질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은 '질문'을 막은 채 '물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감입니다. 교회가 질문을 막으면, 신앙만 남고 신학은 불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도 그런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회장의 질문들이 그렇듯, 고대에도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던진 질문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천지를 짓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라는 것이었어요.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해 당시 성직자들은 '그런 것을 꼬치꼬치 묻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짓고 계셨다'는 말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같은 질문은 하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같은 말로 회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도전했어요. 「고백록」 11장에 실린, 창세기 1장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탁월한 해석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학은 애초부터 외부의 이교도들과 내부의 이단, 그리고 신자들의 질문에 대해 복음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신학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새롭게 주어지는 현실적 상황에서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치는 역할을 해 왔지요.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막는다는 것은 신학을 막는 것이지 복음이 이 시대와 상황에 대해 말하려는 것을 막는 행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신학보다는 신앙이

우선이자 전제

신앙과 신학은

공리와 정리 관계와 같아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신앙과 신학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요.

“둘 가운데 우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신앙이 우선합니다. 신앙은 종교의 시작이자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으면 안다'는, 고대의 금언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신앙이 신학의 전제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이 없이는 신학도 없다는 거

지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신앙과 신학의 관계가 수학에서 말하는 '공리(公理)와 '정리(定理)' 사이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평행선은 하나 뿐'이라는 '평행선 공리'가 그렇듯, 공리란 우리가 그것의 근거를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동위각은 같다', '맞꼭지각은 같다',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와 같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모든 정리들이 나오지요.

20세기가 낳은 천재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현상을 '근거가 제시된 믿음들의 바탕에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믿음이 놓여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공리가 없이는 정리도 없다는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이란 우리가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 없이는 어떤 신학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신앙 없는 신학은 쓸모 없는 형이상학이자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신학이 없는 신앙도 역시 위험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신학은 외부 이교도들과 내부의 이단, 그리고 신자들의 질문에 대해 복음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신학은 복음이 2천 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의미로 선포되었는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도 말해 줍니다. 역시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는 신앙 없는 신학은 공허하고, 신학 없는 신앙은 맹목이라 생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강조했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구호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신앙과 신학이 상호보완적으로 서로를 돕지요.”

-신앙과 신학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철학자이신데도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반면, 오히려 일부 신학자들은 신앙을 잃거나 세상의 공금증에 귀를 닫은 채 계토화되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이는 신학자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를 신학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신학자는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을 이성에 의거해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신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신학과 철학이 설령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더라도,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문의 근거, 곧 그것들이 시작하는 출발점이 각각 다릅니다. 위에서 든 기하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신학과 철학은 공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기하학에서도 공리가 다르면 정리들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우리가 '평행선은 하나 뿐'이라는 유클리드의 평면기하학 공리를 받아들이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명제가 옳지만, '평행선은 없다'는 리만의 구면기하학 공리를 받아들일 경우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보다 크다가 옳지요. 철학에서의 공리는 예컨대 플라톤의 '이데아'나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제일명제'와 같이 이성에 의해 도출된 사변들입니다. 그렇지만 신학에서의 공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따라서 철학과 신학이 똑같이 이성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전개된다 해도 철학은 언제나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하지만, 신학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하지요. 이 말은 모든 신학적 결론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신학은 신앙에 어긋나고 시대에 따라 새롭게 주어지는 현실적 물음들에 합당한 복음적 응답을 할 수 없게 되지요.”

» 9면으로 이어짐

**WCJ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캘리포니아 로버타 원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기독교일보 제 400호

사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주요 교리를 '문답식'으로 설명하는 등 질문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나친 교리 강조의 폐해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기독교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면.

"우선 교리와 신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는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 뿐입니다. 교리나 신학은 그 진리가 새롭게 주어지는 현실적 상황에서 올바르게 드러나도록 돕기 위한 인간적 지식이지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없지만, 교리와 신학은 변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저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기독교 신학의 탐구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운동이며, 항구가 아니라 항해'라고 비유한 것이 그래서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리와 신학은 항상 성서에 근거해야 하지만, 마치 역사가이 그렇듯 언제나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창조적 상호작용 속에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리와 신학은 성서 텍스트와 전통뿐 아니라 당대의 시대적 요구와 물음에도 부응하도록 재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예컨대 가톨릭교회에서 '교황 무오설'이 그렇듯, 교리와 신학이 이데올로기화되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인 양 행세하게 되지요.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자 소설가인 움베르트 에코가 그의 대표작 「장미의 이름」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미의 이름」은 중세 어느 수도원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사건을 추리소설 형식으로 다루었지요. 사건을 해결하려 윌리엄 수도사가 파견되지만 상황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모든 사건이 늙은 수도사 호르헤의 범행임이 밝혀 집니다.

호르헤는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아



김용규 선생은 "이병철 회장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의 질문들은 오늘날 거센 바람을 일으키는 새로운 무신론과 이에 대응해야 하는 기독교 교리 전반에 관해 진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구스티누스 신학 전통에서 있던 당시 보수 교단에 속한, 신실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젊은 수도사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 전해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들에 근거한 새로운 신학에 현혹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수도사들을 살해했고, 나중에는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호르헤가 자신은 '교리'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살인을 하고 죽는 것이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코는 바로 이 문제, 오직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소설을 썼습니다. 이런 당부도 덧붙였지요.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신학 또는 변증으로는 불가능

하지만 자연과학 신봉하는

오늘날엔 '막중한 과제'로 떠올라



김용규 선생의 저서들,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과 '서양문명을 읽는 코드, 신'.

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리나 신학을 진리처럼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결국 질문에 답하는 것은 '변증' 일 테고,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처럼 믿지 않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겠지요. 하지만 교리나 신학은 진리가 아니라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화심은 이러한 신학적·변증적 설득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신의 존재 증명'과 같은 신학이나 변증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약성서의 언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표기된 회심을 시체말로 바꾸면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기호학 용어를 사용하자면 '공리'를 바꾸는 일이지요. 보다 자세히 밝히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이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지, 삶이 시작하는 공리를 바꾸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의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 곧 칭의에 의해서만 가능하지요. 다시 말해 칭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 또는 변증을 통해 누군가를 회심을 하도록 하는 일은 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지금 물으신 대로 그렇다면 신학이나 변증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요컨대 제 책과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웃음). 신학과 변증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요컨대 신학과 변증은 칭의에 도움이 되지는 못해도, 성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과학의 시대'라, 젊은이들이 합리적이지만은 않은 것,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신학과 변증은 이러한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자연과학에 근거한 공격이 활발한 오늘날 신학과 변증에 주어질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대웅 기자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의 빛 선교교회

LA 지역 교회 목록: 갈릴리선교회, 갈보리민음교회, 나눴다 섬김의 교회, 나성성복음교회, 나성제일교회, 남가주리더교회, 남가주광염교회, 성재복음선교회, 세계선교회,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요한 선교교회, 올림피아로교회, 임마누엘선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청운교회, 한우리장로교회, 박현성 담임목사, 강진웅 담임목사,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성성 담임목사, 김광성 담임목사, 김요섭 담임목사, 김성광 담임목사, 최윤형 담임목사,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정장수 담임목사,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 교회입니다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양성평화회 오후 8:0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주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박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십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재가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석영 목사**  
백이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문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창스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 베이 지역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양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망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물통(통)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유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무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금)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토/일)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 광복절 맞아 교계단체들 기념예배



남가주기독교원로목사회와 이승만박사사업기념회가 광복절 기념예배를 드리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 광복 68주년을 맞아 남가주교계 각 단체들이 조국의 해방을 감사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념예배를 잇따라 열었다. 남가주한국예비지역기독교교회(회장 장석운 장로, 이하 기독교교회)는 13일 오후 미주복음방송 4층 공개홀에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예배를 드렸다.

기독교교회 직전 회장 김희창 목사(말씀새로운교회)는 ‘회복하는 신앙인(마17:9-20)’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패역한 세대에 믿음을 빼앗겨 방랑인, 방탕인, 망명인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신앙과 나라를 지키는 기독교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기독교교회 한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임을 인식하게 된다”면서 “오늘날 우리 민족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선포하는 기념예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장석운 회장의 인도 하에 진행된 예배는 부회장 백형로 목사가 사회, 증경회장 단 대표인 원태어 장로(해군 제독)가 기도, 이기홍 지도목사가 축도했고, 애국가와 광복의 노래 제창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남가주기독교원로목사회(회장 이기홍 목사)는 건국초대대통령 이승만 박사사업기념회(회장 김봉건)와 공동 주최 하에 감사한인교회(김영길 목사)에서 기념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김영길 목사가 전했으며, 조이플(Joyful) 중창단이 특송을, 김봉건 회장(리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이 인사를, 라무열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직전 회장), 이종은 목사(OC원로목사회 회장), 박흥기 회장(제향군인회 미서부지회)이 축사를 맡았다.

## 크리스천헬스케어미네스트리 한인지원국 오픈식



크리스천헬스케어미네스트리 한인지원국 오픈에 앞서 관계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크리스천헬스케어미네스트리(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이하 CHM) 한인지원국이 16일 오전 JJ그랜드호텔에서 오픈식을 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CHM은 참여하는 크리스천들이 상호 의료비를 자발적으로 분담하는 의료비 공동분담 사업 단체다.

CHM은 501(C)(3)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20년간 10억불 이상의 의료비를 지원해 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34여년에 걸쳐 10여만명을 대상으로 의료사역을 통해 섬겨 왔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원해 왔다.

이날 소개된 크리스천헬스케어의 플랜과 혜택(Participation Level)에는 브론즈, 실버, 골드 등 개인플랜과 가족플랜이 있다. CHM에 따르면 사업단체, 교회 등 그룹으로 가입하면 보다 특별한 장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병에 대한 제한이 없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CHM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병으로 인해 힘든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이 애플 때도 다른 회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프로그램은 한인교계와 목회자들이에게 꼭 필요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적 프로그램”이라며 “한인교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인지원국에서는 각 교회가 단기 선교를 파송할 때 지원을 하려 한다. 또한 교계의 각종 컨퍼런스와 모임에 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인교회의 교단과 노회, 신학교 그리고 선교단체 등을 후원하며 각 주 도시에 책임자들을 세워 한인교계에 홍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사무국장 티나 정, 디렉터 스티브 정, 지도교본 좌영진 목사, 양경선·박세린 지도목사 등이 참석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세계의료선교사 육성재단 이전 감사예배



세계의료선교사 육성재단 이전 감사예배에서 대표 박승부 장로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손으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함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세계의료선교사 육성재단(대표 박승부 장로)이 사무실을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열었다. 지난 17일 새로 이전한 사육(올림픽과 유니온)에서 열린 예배는 김성권 장로의 인도 하에 김용술 목사가 대표기도, 장재효 목사가 설교, 엄기환 목사가 축도를 맡았다.

장재효 목사는 ‘선교 확장을 위한 준비(행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령의 역사 없는 영혼 구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먼저는 나부터가 성령으로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는 주(主)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지체로 쓰임받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다.

박승부 장로는 인사말에서 “2년 전 6명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70여명의 의료선교사들을 보내주셨다”며 “그간 열약한 환경에서도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교육할 수 있었음을 고백드린다. 보다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의료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은 현재 5기생을 모집해 교육하고 있다.

국제개혁대 개강예배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KAPC 총회장 엄영민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총장 황은영 목사)이 2013년 가을학기 개강 및 영성수련 회를 '사명자의 영성'이란 주제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나성서부교회(이정현 목사)에서 개최했다.

첫날 예배에서 '사역자의 영성 관리'란 제목으로 설교한 엄영민 목사(KAPC 총회장)는 “지난 37회 총회를 지나기까지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서는 안되는 인간적 요소들이 들어와 교단에 정화되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 총회가 지난 어두운 면들과 세속의 평판을 하루 빨리 떨쳐내야겠다는 소망이 있다”며 “신학생들이 신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성의 정의를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목회자들 앞에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이다. 목회하는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사랑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와 감격 때문에 목

회하는 기쁨이 있다”고 말했다. 격려사를 전한 이정현 목사(학교 이사, 나성서부교회)는 “나도 이전에 학교 이사장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치꾼들로 인해 더러워지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은 적이 있어, 내가 이 교단에 계속 몸을 담아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다”며 “이제는 통찰력이 있는 신학교를 만들어내서 학생들로 하여금 깊은 영성을 체험하게 하는 수도원적인 곳이 되길 바라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예배는 사회 황은영 총장, 기도 전태준 목사(LA중앙교회장), 인사 양수철 목사(이사장), 성경봉독 김성일 목사(LA교회장), 설교, 헌금기도 표세홍 목사(에네펠교회), 장학금 전달식 원사라 전도사, 격려사, 광고 김요섭 목사(이사회 회계), 축도 조철일 목사(증경총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순서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이날 원사라 전도사의 후원으로 고창근, 정현숙, 방홍렬, 변경진 학생이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복음 전하는 가위손, 전도를 말하다

11년간 무려 3백명 인도한 전도왕 나성순복음교회 김인태 안수집사



올해로 11년째 전도왕 타이틀을 고수하고 있는 나성순복음교회 김인태(54) 안수집사가 자신만의 전도 비결을 공개했다. 지난 18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새중앙교회(후버+비블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다.

김 집사의 원래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다. 1986년 아시아 미용선수권대회 우승, 미용 국가대표 트레이너 200여회 대회 심사위원 등을 맡으며 미용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아온 그는 이번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위손’이란 별칭을 얻게 되까지 겪은 우여곡절을 털어냈다.

2002년 도미한 이래 나성순복음교회에 다니는 그는 불과 6개월만에 전도왕이 됐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전도왕 타이틀을 놓쳐본 일이 없다.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재미로 하루하루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김 집사는 전도의 원칙을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중요한 건 전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요? 결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정해놓고 전도할 대상을 놓고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습관입니다. ‘남과 같이 해선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삶 가운데 전도가 습관으로 자리잡도록 부단히 애쓰는 것이 제 나름의 비결입니다.”

[독자 신앙간증] 주는 정 받는 정

눈물 흘려준 토성이여



남주살롬교회 박영찬 장로

남북의 분단선 38선을 눈앞에 두고 나는 아내와 세 살배기 딸을 데리고, 청진에서 합류한 피난민들과 갖은 고생을 한 끝에 간신히 토성에 도착했다.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 어둑어둑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그리웠던 고향 개성 땅을 밟게 된다는 생각에 기진 맥진한 가운데에도 희망에 차 가벼운 마음으로 부락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우리 일행이 오는 걸 앞서 알아차린 부락 청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우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중국서 남한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피난민일 뿐이다. 하룻밤만 재워주면 내일 갈 사람들이니 부디 안심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피난민들에게는 빌려줄 방이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에 “여보시오. 내 딸 좀 들어보시오. 세상 난 갖난아가기 있으니 마 곳간이라도 빌려주시오”라고 간청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구간도 부엌도 빌려줄 수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에 “그럼 배가 고프니 반찬이라도 팔 수 없는가”라고 묻자 이들은 “된장, 고추장, 간장까지도 그간 피난민들이 거덜냈으니 팔고 주고 할 것이 없다”며 세 차게 문을 닫아버렸다. 참으로 인정사정 없는 살벌한 마을 인심이었다. 할 수 없

이 우리는 부락 건너편 시냇가에 가서 하룻밤을 새우기로 했다.

모래사장엔 짐을 풀었으나 이슬비 내리는 초가를 날씨가 밤이 되니 추웠다. 침구 없이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아기를 중간에 두고 쪼그린 채 새우잠을 잘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때였다. 노인 한 분이 오셔서 우릴 불쌍히 여기셨는지 “딱한 신세로군. 젊은 분이 고생이 막심하오. 보아하니 선비의 기상인데...”라고 위로하며 가마니 서너 장을 가져다 주셨다. 고마운 마음으로 그걸 받아 깔고 덮고 파스하게 하룻밤을 지내게 됐으니 노인의 따뜻한 인정에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이토록 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셨다. 중국에서 구사일생의 처지에 놓였을 때 중앙군 왕대위 부인을 통해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또 회령에서 인민군에 쫓겨 중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때에도 친구를 만나 구명하게 하셨다. 이어 토성에 와서도 노인을 통해 비단이불 못지않은 가마니를 주셨으니 평생 두고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 노인의 신세에 대해서는 언젠가 만나면 갚고자 하였으나 그후 38선에 가로막혀 영영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521-0991 / F.(714) 521-4636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714) 680-9556 / F.(714) 680-6418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허귀암 담임목사 남가주잠실교회 영혼을구원하여 제자로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usa8291@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714)999-9900 / visioncc.org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949) 854-4010 / F.(949) 854-4018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949)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562) 690-9800 / F.(562) 690-8044

세리토스장로교회 18184 E. 178th St., Artesia, CA90701(본당) T.562-677-7777, F.562-677-7778/ ilovepcp.org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CA92604 T.(949)857-9425 / F.(949)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949)769-9628

김삼도 목사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949) 514-4346 F.(949) 305-3951

지 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714) 488-8291, (714) 644-1697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CA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714) 446-6200 / F.(714) 446-6207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714) 893-1652 / kccroc.com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안근성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김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213) 447-8169 / F.(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확장 이전 기념 세일!

100불 이상 구입시마다  
미네랄 회색 바다 소금  
1파운드 (16온스-40불상당)

무료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100불 이상 구입시 마다  
**Sea of Cortez 무공해 천연 미네랄 회색 바다소금**  
1파운드(16온스 - 시판가 40불)를 증정하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No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No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할.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잠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이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니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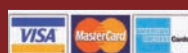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융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 복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REVIEW

## 선지서의 계시들, 낯설지만 믿음으로 공유하기

이사야·예레미야·에스겔은 공통적으로 계시를 ‘보았다’

‘선지서(예언서)’ 권위자인 에드가 콘라드(Edgar W. Conrad) 박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선지자(예언자)들이 ‘보았던 것’에 대해 주목한, 「새롭게 읽는 선지서(CLC)」가 나왔다.

콘라드 박사는 지난 2008년과 2011년, 이 책의 번역가이기도 한 장세훈 교수의 초청으로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펴냈다.

콘라드 박사는 서론에서 “과거 학자들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에 초점을 뒀고, 특히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같은 선지서들을 현재의 세계에 맞추기 위해 이 책들을 재구성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 책에서는 선지서의 문학적 배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와 조화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이 선지서들의 문학적 세계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이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사야(사 1:1)와 예레미야(렘 1:11), 에스겔(겔 1:1) 등의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글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것’들을 소개하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저자는 “힘들더라도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난 선지서의 정보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성과 본문 의미의 깊이를 인식함으로써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시작부터 자신의 ‘예언’이 웃시아-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것(사 1:1)’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토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

지자에게 말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성전에서 ‘하중(계시)’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라 믿고, 그 계시는 미래에 대한 것”이라며 “그가 본 것은 이사야 시대의 백성도, 아하스-히스기야 왕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땅의 파멸과 회복과 관련된 먼 미래의 시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전한다.

저자는 그렇게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사야가 이해할 수 없는 먼 미래에 대해 본 것이라면, 40장부터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에 역사비평학자들처럼 ‘제2이사야’라는 개념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비판적이다. 그는 “이사야서는 지금 소개되는 왕들의 시대(웃시아-히스기야)를 경험한 공동체와 결부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이사



새롭게 읽는 선지서  
에드가 W. 콘라드 | CLC | 152쪽

야서는 시온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하는 한 세계를 보여주고,

이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갈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라는 내 믿음과 조화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낯선 세계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공통된 믿음을 공유하는 세계를 만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삶에는 궁극적 의미가 있다는 믿음을 이사야와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후 저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이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에스겔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예시로 제시한다.

이대용 기자



티칭 이사야  
데이비드 잭맨 | 성서유니온선교회 | 340쪽

##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 시리즈 강해 설교 가능할까

배우고 가르치는 이들을 위한 「티칭 이사야」

본문 주석이 아니라,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구약’ 이사야서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전달하며 그것으로 청중을 먹이도록 돕기 위한 이사야 안내서 「티칭 이사야(성서유니온)」가 발간됐다.

영국 강해설교 학교 중 하나인 콘힐 트레이닝 코스(CTC) 훈련교재이기도 한 이 책은 데이비드 잭맨(David Jackman) 목사가 이사

야서의 큰 그림과 중심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제시하도록 저술했다.

요즘에는 이사야서가 그 방대한 분량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성육신을 예언하는 본문들(7, 9, 11장)과 부활절 때 종의 노래(53장)만 집중 연구되고 설교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으며 회중

에게서 모두에게 필사적으로 필요한 많은 유익과 양분들을 빼앗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책은 이사야서 66장을 장별로 설교 개요와 성경공부 질문들을 수록해, 목회자들이나 성경 교사들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약 예언서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사야서의 위치와 예언의 목적, 구조, 시리즈 설

교 구상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제1이사야’, ‘제2이사야’라고 불릴 정도로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이사야 1-39장과 40-66장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간단한 논의를, ‘이사야는 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 사람인가’를 통해 펼치고 있다.



### 장재효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은 진실되고 충성스런 종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은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과뿐이더라!”

장재효 지음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자로 더 많은 구령성과를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맡기신 사역의 영적성과를 위해 진총간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이 책을 구입 탐독하실 때 영적신앙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책값으로 지불하신 10불은 한,미간 탁송운임과 구독자에게 배송 우편비로 사용될 뿐, 책값은 무료로 국제성은복음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임팩트 투자’

미국내 공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동성에 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반기독교 교육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보장되지 않는 기대보다 이제 교회가 적극 나서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차세대 新개념 대안학교'를 설립해 성공리에 운영 중인 교육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한다. 다음은 그 두 번째 순서로 NCA 기독교학교 제이슨 송 교장의 글이다. (편집자 주)

몇개월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악동뮤지션 이찬혁, 이수현 남매의 퍼포먼스를 TV를 통해 접했다. 테크노뮤직(현란하고 선정적인 춤 그리고 리듬과 비트가 중심인 음악)과 성(性)적 이미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일반 음악과는 달리 이 남매는 특독되는 가사와 음악, 그리고 깜찍한 아이디어와 연출, 그리고 상큼한 보컬을 통해 자신들 특유의 개성을

세상에 선사했다. 나중에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악동뮤지션은 공물 선교사의 자녀다. 모 신문사의 논설자는 이들이 틀에 박힌 한국 교육을 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었기에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센스있는 발언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세상 문화와 거의 완벽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틀에 박힌" 기독교 문화의 장벽을 넘어 신선한 콘텐츠를 제공한 악동뮤지션에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이들의 성공이 더 많은 기독교인, 특히 젊은이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란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베끼기보다 보다 신선하고 인상적이며 깔끔하고 재미있는 기독교 문화, 아니 기독교 문화의 범위를 넘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화와 콘텐츠를 만들어 보라고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싶다.

젊은이들이 이런 모험(?)을 시도하려면 우선 기성세대 크리스천들의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 좀 재



제이슨 송 교장  
NCA 기독교학교

정이 넉넉한 개인과 기업들이 끼(!) 있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키워야 한다. 이들이 자신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생각, 그리고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저 "왜 특독되는 기독교 문화가 없을까"하고 한숨만 내쉬지 말자.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 문화 속에 가둬놓고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말자. 가능성과 달란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고 준비시켜서 세상의 문화와 콘텐츠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큰 꿈을 소유한 전략가(strategists)와 사업가(businessmen)가 절실히 필요하다.

악동뮤지션과 같은 주옥같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이 아이들을 키워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시키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하나님의 청지기들, 특히 재정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있는 것인가?

어떤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0년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익은 약 16조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교회와 선교단체 등 각종 기독교 기관이 접수한 기금은 약 2%라고 한다. 좀 씩씩한 말이지만 미국에선 매년 40억불을 애완동물에, 그리고 60억불을 다이어트에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60억불은 미국내 전 교회의 1년 총 현금과 맞먹는 금액이다.

재정의 축복을 받은 기독교인들여, 잠에서 깨어나자! 좀 멋지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날, 그분을 대면할 그날엔 부자나 가난한자 없이 다 동등한

사람으로 설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멋지게 사용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도를 확장시키고 영향력있는 일꾼을 키우는 것이 신실한 청지기의 자세라 하겠다. 앞으로 더 많은 악동뮤지션들이 발견되고 배출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고 후원할 하나님의 청지기들의 움직임도 기대한다.

끝으로 연예계뿐 아니라 교육, 정치, 경제, 언론 등 각 영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배출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미국이란 나라가 영적으로 썩어간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흐름을 뒤엎어놓을 다음세대에게 투자해야 한다.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역, 학교, 단체, 주일학교 등에 과감히 투자하면 10년 내지 20년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아무쪼록 교회 건물과 건축에만 신경 쓰지 말고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한여름 얼음냉수 같이 시원하고 신선한 사람을 배출하는 데 힘을 쏟아보자.

### 진지하게 하소서

비잔틴 제국으로 알려진 동로마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이 바로 그곳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화려함과 견고함으로 세워진 결박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보스포로스 해협과 골드혼이라 불려지는 만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덕에 그 어떤 공격에도 함락될 수 없는 철옹성이었습니다.

1453년 21세 밖에 되지 않았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황제) 메메트 2세는 20만명의 육군과 400척의 군함으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괴물)'라는 이름을 가진 길이가 무려 26피트 8인치나 되고 포탄의 무게가 1,344파운드나 나가는 거대한 대포로 콘스탄티노플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스

포로스 해협에서 골드혼만에 이르는 수십마일의 산길에 은밀히 나무로 길을 만들어 밤에 72척의 배를 옮긴 뒤 골드혼만에 군함을 띄우는 허를 찌르는 전술을 통해, 결국 견고한 천혜의 무적도시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됩니다. 이에 1,100년간 이어온 로마제국의 명맥은 끊어지게 됩니다.

역사는 오스만 제국의 막강한 화력과 기상천외한 군사작전이 콘스탄티노플 함락의 주된 요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된 결정적 이유는 어이없게도 성문 중 하나를 잠그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을 통해 오스만 제국의 군사들이 일제히 쳐들어왔고 결국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로마제국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었고, 오스만 제국이 새로운 역사의 주



김지성 목사  
글로발선교교회

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역사를 바꾼 사건의 배후에는 의외로 어이없는 일이 그 이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역사는 삶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인생의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

노플 함락사건을 통해서 사소한 일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소하게 여겼던 일이 영적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내일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잊고 지나친 결과가 상상을 초월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 '진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론짓게 됩니다.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예배이기에 '한주쯤이야'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일의 삶이 결정되는 주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쯤이야...라고 쉽게 생각했던 일이, '이런 일쯤이야...라고 가

볍게 여긴 일이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연륜'과 '나의 경험'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인생이란 아침에 난리를 떨다가도 해가 지면 속히 없어지는 안개처럼 허무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통해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듯 싶습니다.

내 눈에 드러난 모든 것들을 내 능력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으로 쉽게 판단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상담 받는 진지함은 인생을 승하게 만들어 줍니다. 정말 '진지함'이 관건입니다.

### “렌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나 탁시도, 집과 또 많은 것을 렌트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추세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이나 두 번 밖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직접 사는 것보다 렌트해서 쓰는 것이 훨씬 값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렌트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악세사리

를 포함한 옷, 전기 연장, 비디오 게임, 교과서, 카메라 렌즈, 주차 공간, 가구, 비치 걸상, 시신을 넣는 관, 보석 등 거의 다 렌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모나 건강 또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같은 것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믿음을 렌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나 가족, 친

구 등 타인의 믿음을 빌려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이헬로침교회 박광철 목사

### 기독교일보

편집국: 박해민, 정재호, 이원성,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토마스 탕

지사망: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 팩스: (213) 402-5136

E-mail: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성경 쉽게 읽는 방법 바로 “여기!”

# 성경통독의 길잡이 **썩 난 지팡이**

성도들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신년목표로 빠지지 않고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통독’ 특히 평신도들에게 방대한 분량에 내용도 쉽지 않아서 성경한권을 다 읽기는 만만치 않다. LA사랑의빛선교교회 이학진 장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통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길라잡이 <썩 난 지팡이>를 펴냈다.

“지난 18년간 교회 구역예배에서 말씀 인도자로 사역하면서 평신도들로부터 성경읽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말씀 읽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은 구약성경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로 나뉘고, 신약성경은 사복음서와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과 예언서로 나뉘었다.

이 책은 성경을 주제와 흐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구성해 각 단락의 중요 구절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게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입문의:(213)434-0033(이학진 장로), (323)766-8793~5(JOY 기독교백화점)

구입처:JOY 기독교백화점(3170 W. Olympic Blvd, #E, Los Angeles, CA 90006)



이학진 지음

이상명 목사의 성서로 문화 읽기

하이컨셉, 하이터치 시대와 영성



이상명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앨빈 토플러 이후 최고의 미래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다니엘 핑크는 그의 책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6가지 조건이란 디자인(design), 스토리(story), 조화(symphony), 공감(empathy), 유희(play), 의미(meaning)이다. 그는 이를 위해 인류 역사를 4단계로 구분하고, '농경 시대와 농부', '산업화 시대와 공장근로자', '정보화 시대와 지식근로자'의 단계를 지나 개념과 감성의 '하이컨셉, 하이터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 단계인 '하이컨셉, 하이터치 시대'는 창의성과 감성적 공감 능력이 뛰어난 우뇌(오른쪽 뇌)형 인재들이 대거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뛰어난 통찰력에 공감하면서 현대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시대

핑크는 현시대를 '하이컨셉, 하이터

치 시대'로 규정했는데, 그가 말한 '하이컨셉'과 '하이터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이컨셉'은 재능과 기회를 포착하고,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다.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내고, 얼핏 보기에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하이터치'는 다른 사람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미묘한 인간관계를 잘 다루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를 전파하며,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이를 추구하는 능력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시대에 핑크가 제시한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6가지 조건에는 이전 시대가 요구하지 않은 플러스 알파를 조건마다 하나씩 강조한다. 기능만 아닌 미학적 디자인, 단순한 주장만이 아닌 훌륭한 스토리, 집중과 전문화만이 아닌 조화(통합), 논리만이 아닌 공감, 진지함만이 아닌 유희(유머), 물질의 축적만이 아닌 의미가 그것들이다.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이러한 플러스 알파 요소는 우뇌와 관련되어 있다. 좌뇌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우뇌는 직관적이고 전체론적(holistic) 능력과 연계되어 있다. 하이컨셉, 하이터치 시대에는 좌뇌의 활동 못지않게 우뇌의 활동이 더욱 요구되고, 그 둘의 통합과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핑크가 제시한 새로운 시대의 인재가 지녀야 할 6가지 핵심 능력은 정보화 시대와는 다른 차원의 지도자상

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씩 살펴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 속에서 구현된 것이 아니던가?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예수님 영성

물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농경문화와 21세기 하이컨셉, 하이터치 시대는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그러나 1세기 무대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이미 앞서 말한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을 몸소 보여 주셨다. 그렇다고 하이컨셉, 하이터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조건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든지, 예수님의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21세기에 더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과 정신은 시대를 가로질러 흐르는 하나의 규범이고, 삶의 조건이 다르더라도 사람이려면 추구해야 하는 근본 정신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 속에서 미래 인재가 지녀야 할 6가지 조건이 어떻게 시연(試演)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에 미치지 못하는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다. 저자거리에서 요란하게 떠들며 드리는 기도보다도 골방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셨다. 인위(人爲)로 재단된 것과 외형적 기능보다도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피조물과 순수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일상의 우물 속에서 두

레박을 던져 길어올린 시원한 물맛과도 같이 지친 영혼을 일깨우는 진리를 간직한 스토리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딱딱한 교리라는 형식보다는 일상의 스토리로 가르침을 베푸신 뛰어난 교사요 이야기꾼이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공간은 은밀한 장소나 한적한 곳만 아니라, 인간 삶의 모든 단면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생생한 현장이었다. 당대의 율법이 규정한 성과 속의 경계를 넘나드 시면서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율법의 문자 속에서 끌어내셔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인간과 세상을 전체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셨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능력을 제하시려고 인간의 한계와 고난과 죽음의 상황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이다. 차별과 분리가 아닌 조화와 통합의 영성과 실천으로 인간과 그 세상을 바라보셨고 품으신 것이다. 이것은 함께(com) 아파하는(passion) 공감(compassion/empathy)의 능력이다. 그것이 극에 달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고, 제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서 상대의 티를 비난하는 이들을 일갈하시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견주신 것은 당대의 어느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존철살인의 비유이자 언역적 유희다. 형식과 위선으로 빚어진 당대의 가진 자들과 종교 권력에 대한 희화화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내일 어

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곡간에 재물 쌓는 일에 혈안이 된 이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 시대의 키워드, 영성

1세기 현장을 무대로 몸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정신과 인격은 21세기 오늘의 현장에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는 이들이 제자요, 그 정신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현장이 교화다. 핑크가 제시한 새로운 시대의 인재가 갖추어야 할 6가지 조건은 오늘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그 6가지 능력이 더욱 요청되는 것은 그 이전과는 달리 21세기가 새로운 영성의 시대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앞선 정보화 시대가 지성을 강조했다면 우리 시대는 영성이 필요한 시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좌뇌가 종교와 도그마(교리)와 관련되어 있다면 우뇌는 영성과 관계와 감정과 경험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핑크가 자신의 책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영성에 관한 것이다. 크리스천 지도자라면 핑크가 제시한 6가지 조건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흔탁한 21세기에 필요한 영성에 대한 진지한 숙고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핑크의 6가지 조건에 하나를 더 첨가한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키워드인 영성이다. 지성과 논리와 물질만이 아닌 전체를 아우르고 통찰하는 관계지향적인 묵화와 감성과 공감과 영성도 겸비하여 세상과 소통할 때만 복음의 지경은 확장될 것이다.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스물 두 번째 지팡이



이학진 장로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씩난 지팡이 저자

요한계시록을 내용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 1장, 머리말

혹독한 고난의 시기에는 미래의 소망이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도망자가 되거나 유배되기도 하였습니다.

밭도 섬에 유배됐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이해하기어려운 말씀이지

만 하나님께서는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때가 가까움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찬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 2-3장, 서론  
교회의 승리를 위한 성령의 권면

본서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세상의 전체 교회를 대표하며, 일곱 교회에 주신 교훈과 책망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위로를 줍니다. 사도요한 당시 교회가 받은 환란은 모든 세대의 경건한 교회들이 당하고 이겨내야 할 환란의 예표이며(딤후 3:12), 환란의 절정은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것입니다(마 24:29-31).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권면 끝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칭찬과 책망

을 함께 하십니다.

계 4-16장, 본론  
재앙과 영적 전투

4장에 요한이 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어좌에 등극해 계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는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가 밤낮없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4:8). 5장에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 보좌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일곱 인으로 봉인한 두루마리를 펴 볼 합당한 자(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자)입니다. 그리고 생물들과 장로들과 많은 천사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6-16장에서 계속되는 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적 재앙, 여자와 붉은 용의 싸움 등은 특정 기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반복되어 실현될 광범위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재앙과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교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심사만 사천과 셀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백성)들

은 사단의 삼위일체(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단의 근원인 용의 세력은 없어지게 됩니다.

계 17:1-22:5, 결론  
심판과 구원의 절정

1)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는 새 예루살렘 성과 대비되는 관계로서 비유적으로 여자와 그녀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12:7-12)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성령께서 다스리십니다(천년설).

2) 최후의 심판에서 사단의 세력은 서로 미워하여 자멸할 것을 암시하며, 성도들은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악의 세력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어린 양의 승리)로 표현됩니다.

3)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다른 차원의 질서)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사

단의 세력)이 없어졌고, 바다(악의 근원, 어떠한 형태의 악)도 다시 있지 않더라(21:1, 참고 벰후 3:13).

4) 새 창조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7).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하늘 새 땅의 예언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환상입니다(사 65:17-25).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계 22:6-21, 맺는 말  
본서의 가치와 증언들

1) 22:6-7, 본서의 가치 2) 22:8-17, 증언들 3) 22:18-19, 본서의 절대적인 권위 4) 22:21, 재림에 대한 약속과 축도(22:20-21,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어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마 24:29), 주 예수는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미주 제 50차 성경완독집회  
2013년 9월 2일-5일

3박4일

성경 66권 완독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니다.  
성경 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 일시** 2013년 9월 2일(월)-5일(목)
- 장소**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Tel: 909.983.0994 / Cell: 909.268.4279
- 주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Tel: 708.307.8280
-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 참가비** 1인당 \$70(숙식비 포함)
- 등록** 9월 2일 당일 오전 9시 - 10시
-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 개회예배** 9월 2일 오전 10:00
- 수료식** 9월 5일 오후 6:00
- 특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암송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닳트의 건강생활 모범



주최: 말씀사랑운동 미주요한선교단 후원: 갯스윌 연합교회, 크리스천헤럴드(라디오방송 AM 1650), 기독일보, 인랜드지역목회자협의회, C&MA 서부지역회, 할리웃호순장로교회

# Life



## ■ 성지순례 칼럼

### 불평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고 약속하신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칠십 인의 장로들과 함께 회막에 모이게 하고, 1개월 간 모든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오게 하셨다.



김용규 목사

메추라기는 히브리어로 셀라우라고 하는데 꿩과 속하는 새로서 몸길이는 약 18cm 정도이며 털은 다 갈색이고, 흑색의 반점이 있다. 이 메추라기는 작은 철새로서 3-4월경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데, 시내 반도와 팔레스틴은 그 통로가 되는 지역이다. 이 새는 날개가 짧으므로 계절풍을 이용하여 대군의 떼를 이루어 날아 이동한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메추라기는 살이 썩 든중하므로, 시내 반도 및 애굽에서는 손으로 메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9월에는 반대로 대군을 이루어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한다. 특히 가을 메추라기는 이집트에서는 별미로 알려져 있

다. 이 새는 동지를 지면에 만들고 평균 16개의 알을 낳아 키우는데, 알은 식용으로 쓰인다.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신을 메추라기에 비유하기도 하였다[삼상 26:20]. 그리고 히브리어 셀라우는 비만을 뜻하는 말이다.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는 메추라기는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많은 떼를 지어 북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철새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이동은 매우 먼 거리이므로 중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땅에 내려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사람들에게 잡히기 쉽다.

민수기의 기록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떼를 만난 것은 대략 4월 봄철이 되므로, 메추라기가 아프리카를 떠나 지중해로 이동하는 시기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민 11:32에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말리기 위해 널어둔 것은 현재 메추라기를 햇볕에 말리기 위해

밖에 널어놓은 이집트인들의 풍속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풍속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존의 조건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여겼던 것 같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때는 출애굽 제2년, 이월 이십일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이르렀을 때부터이다(민 10:11-12, 민 11:31). 그런데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된 사유가 발생한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다. 민 11:4-9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의 탐욕에 백성들이 부화뇌동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여,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허벌판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구할 수가 있을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는 요구는 억지인 것이다. 물론 이 사실은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부화뇌동하여 이성을 잃은 군중심리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파멸이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께 앞도될 수밖에

없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 하는 이 백성의 요구가 억지이기는 하나 이 백성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모세 너 홀로 지게 하지 않겠노라” 하시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회막으로 모이게 하시고, 모세에게 부여주셨던 하나님의 신령을 70 장로들에게도 부여주셨다. 예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는 증거이다. 70인 장로들이 예언을 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였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 주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탐욕을 낸 백성들을 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를 ‘탐욕의 무덤’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영적 성장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요구 이전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였으며, 거기에는 모든 생존이 축복이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이스라

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기브롯 핫다와를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다. 이곳에서 사건은 상당히 중요하였던 것 같다. 신명기 9:22에서 다시 한 번 데바라와 맛과 함께 강조한 것으로 보아,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기브롯 핫다와는 시내산과 하세롯 사이에 있다는 성경 기록 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시내산과 하세롯으로 추정되고 있는, 아인 쿠드라 사이에 있는 루이스 엘 에베리그와 나와미스를 기브롯 핫다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정을 할 뿐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믿음이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용규 목사

령전교회 중동 선교사  
크리스찬 해피투어 중동 선교사  
성서 가이드북 저자

## HEALTH

### 여드름흉터 해결 해주는 프락셀, 어떻게 선택할까



불경기일수록 립스틱이 잘 팔리는 것은 하나의 경제 이론이 됐다. 아무리 환율이 올라 제품 가격이 인상되었다 할지라도 백화점은 늘 불린다. 그러나, 큰맘 먹고 구입한 고가의 화장품이라도 여드름 흉터를 없애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요즘 여드름흉터를 시술을 이용해 해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양한 시술 가운데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프락셀이다.

이미 한번쯤 프락셀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선택에 어려움이 없을테지만, 프락셀 시술 후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프락셀을 선택하는 일은 삼가하는 것

이 좋다. 이 시술은 스타룩스, 펄, 주비아, 에코, 어퍼, 모자이크, 써모셀, 프락셀제나, 셀라스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제품이 많아 단번에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시술시 가장 따져보아야 할 것은 프락셀 계열의 원리인데, 시술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그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

양재피부과 이너뷰피부클리닉 김현 원장은 “프락셀은 딱지가 지는 프락셀 계열(박피성프락셀), 딱지가 지지 않는 프락셀 계열(비박피성프락셀)로 나눌 수 있다”며 “여러 종류의 프락셀 시술을 받은 후 효과를 보거나 못 보고의 차이는 시술 상품이 좋

고 나쁘다는 프락셀 계열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고 전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흉조만 지고 딱지가 지지 않는 프락셀 계열은 단독으로는 크게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기준에 따라 딱지가 지지 않는 프락셀 계열로 재생효과 정도를 얻었는지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딱지가 지는 계열의 프락셀로 시술하는 경우도 시술 깊이나 노후에 의해서 시술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우선 프락셀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술코스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겉살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http://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 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499 Lease**  
per month plus tax

### SONAT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109 Lease**  
per month plus tax

### 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99 Lease**  
per month plus tax

### 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89 Lease**  
per month plus tax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8월 29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l. 562 900 2399**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강선영 칼럼

### 나르시시즘과 미성숙의 문제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신화에서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하며 그리워하다가 물에 빠져 죽어 수선화가 된 나르키소스(Narcissos)라는 미소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프로이트(Freud)는 이 말을 정신분석학에서 “자아의 중요성이 너무 과장되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으며, 나르시시즘에 대해 “자기 자신을 리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인격적 장애(성격장애)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나르시시즘Narcissism’은 ‘자기애(自己愛)’를 뜻하며 모든 사람에게 나르시시즘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건강한 수준의 자기애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지만 문제는 병적 나르시시즘의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것을 DSM IV 기준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명명하며 자기도취와 자기중심성이 성격특성으로 굳어 부적응적인 상태가 지속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은 타인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어른이 되어도 인격적 미성숙을 낳게 됩니다. 자신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사



강선영 소장

람이라는 과장된 지각을 하게 되고,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거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게 됩니다. 또한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능력이 결여되어,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믿기도 합니다. 내현적 자기애로 나타나는 경우는,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에 상처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즘이 병적으로 강해지면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없게 되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인격의 성숙도 기대하기 힘들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인식하고

변 사람의 욕구와 감정에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프로이트는 나르시시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성은 자아에게 집중하는데 비해, 남성은 대상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지나치게 이상화하여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기도취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심할수록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작은 것에도 험담과 비난을 일삼게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자신이 남들보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지나친 남성이나 특별하거나 우월하다고 느끼는 남성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나르시시즘은 인간관계의 지속을 방해하고,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가져오며, 심지어 건강에도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의 공동 연구자인 버지니아대학교 심리학부의 데이비드 레인하드 교수는 “나르시시즘은 높은 자부심인 반면, 한편으로는 자신의 우월감이 훼손될 때 그만큼 더욱 상처를 받는 나약한 면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자기애(나르시시즘)를 가진 남성은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

을 때에도 혈류에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 심장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코르티솔(cortisol)은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해 분비되는 물질인데, 흥미로운 점은 여성은 건강에 별로 해가 되지 않는 반면 남성의 나르시시즘은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무엇보다 인간관계 문제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자신을 과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충고나 조언에도 쉽게 기분이 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남녀관계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성숙한 자아가 모든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자기애적 인격장애는 자신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람이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신이 중심이고 자기만 칭찬해주고 훌륭하다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며 특별한 대우

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별한 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착취적이고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사람들과 토론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도 자기의 관심거리는 장황하게 늘어놓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은 무시하고 심지어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경멸하기도 합니다. 늘 이런 투의 말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나친 나르시시즘은 영혼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미성숙한 인격 상태로 머물게 하기 때문에 자신과 주위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게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입니다. 입에 남의 흉을 달고 있거나,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비판과 비난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병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가족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속히 알아차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치유되고 성숙을 점차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소장

### 긴장성 편두통 방치하면 만성두통으로 이어져

두통의 증상은 다양하다. 1988년 국제 두통학회에서는 두통의 종류를 13가지로 분류했다. 그 중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이다. 특히 두통의 40%를 차지하는 긴장성 두통은 방치하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어 사전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긴장성 두통은 감정적 혹은 신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머리 양쪽이나 앞머리 혹은 뒷머리 부분이 빠근하게 아프거나 지끈거리는 통증이 오기도 한다. 머리 전체가 무겁고 멍하며, 머리 주위를 띠로 꼭 둘러 맨 듯 아플 수도 있다. 목덜미나 어깨가 뻣뻣하고 심하게 땅기는 통증이 수반되기도 한



다. 오전보다 오후로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며, 수 시간에서 심할 경우 수 일씩 지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두통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평소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거나 만성으로 이어질 경우 우울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긴장성 두통에 대해 두통치료병원 풀과나무한의원 김재영 원장은 “최근

내원하는 환자들의 양상을 지켜 보아도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는 바쁘고 긴장된 생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스트레스가 혈관과 뒷목 부위의 근육을 긴장시켜 후두부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은 “두통의 한방적 견해에 따르면 긴장성 두통은 ‘담궤두통(痰厥頭痛)’이라 부르며, 평소 위장 기능이 약하고 지나치게 꼼꼼해 매사 긴장감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담궤두통은 머리가 아플 때마다 양쪽 뺨이 파라면서 누렇게 되고, 어지러우며 눈을 뜨려고 하지 않는 증상

과, 몸이 무겁고 멍멍하게 토하려고 하는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난다. 특히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업무가 많은 직장인들, 신경 쓸 일이 과다한 주부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경우 이런 두통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의학에서 ‘머리는 인체의 모든 양기가 모이는 곳’(頭者諸陽之會)이

라고 하였으니, 두통 치료는 두통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질병의 예방효과도 있는 것이다. 김 원장은 “쉽게 보고 지나치는 것이 더 큰 병을 키우는 우(愚)가 될 수 있으니, 두통이 발생했다면 세심하게 자신의 몸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기자

**WCJU**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http://www.fbmcopiers.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 모터 수리

213-256-4884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 빙베어 농축 흑염소

-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줄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내지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극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PEOPLE

# 韓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감사할 줄 알게 됐다”

## 시애틀서 특강 전해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35)가 지난 13일 시애틀 중앙도서관에서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의 우주를 향한 도전'을 주제로 한국어 특강을 했다.

주시애틀총영사관 주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청소년과 학부모,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100여명이 참석해, 1시간 반 이상 진행된 이소연 박사의 열광을 경험했다.

이소연 박사는 우주선에서 노래를 부른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우주에서의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우주인으로 선발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은 과정과 우주에서의 생활을 통해 느끼고 배운 점을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이 박사는, 러시아에서의 혹독한 우주인 훈련 과정, 11일 동안 체류한 ISS(국제우주정거장)의 생활, 목숨을 건 귀환 등의 체험담을 전했다.

이 박사는 “여유 있는 마음 자세와 최선의 노력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하게 한다”며 “내 인생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한 이소연 박사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정말 아름다웠고, 물과 공기를 마음껏



시애틀 공립도서관 강의를 하는 이소연 박사.

누릴 수 있는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다”며 우주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감사할 줄 아는 삶’에 대해 강조했다.

“우주정거장은 지구에서 400km,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지만, 그 위에서 물을 마시거나 숨을 쉬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주인들이

물과 공기를 마시는 데 돈도 노력도 많이 들지요. 그런데 400km 아래서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숨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지요.”

이 박사는 이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북한이나 아프리카가 아닌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큰 행운이었다”면서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교육 환경을 불평하지만, 지구상 수많은 나라에는 그런 교육 환경 자체가 없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UC 버클리에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공부 중인 이소연 박사는 이날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려 관심을 모았다. 이소연 박사의 남편 정재훈(39)씨는 현재 워싱턴주 퓨알럽에서 안과 개업을 준비 중이며, 9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로 알려졌다.

김브라이언 기자

# “케네스 배를 구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아”

## 시애틀 1세 한인교계도 구명운동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시애틀 한인교계 2세권에서 촉발된 데 이어 1세권에서도 시작됐다.

북미주를 거점으로 탈북자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향선교회는 지난 14일 시애틀 베다니교회에서 케네스 배 선교사 석방 기도회를 개최했다.

탈북자 선교사 윤희목 목사는 “워싱턴주 린우드에서 거주했던 케네스 배 선교사는 북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북한을 돕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을 뿐”이라며 억류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윤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로 탈북자 망명을 돕던 중 중국 감옥에 15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풀려났던 바 있다.

윤 목사는 케네스 배 선교사가 감옥에서 극심한 고문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감옥에서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다. 배 선교사의 몸무게가 94kg에서 71kg으로 줄고 지병이 발병했다면, 그를 구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배 선교사의 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전 세계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특히 미국 정부가 앞장서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목사는 공산권 국가에 비슷한 이유로 수감됐던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건강이 악화된 배 선교사에게 “감옥이 아닌 기도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라며 “늘 성경 묵상과 예배를 거르지 말고, 배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당부한 사실을 전했다.

배 선교사의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날 기도회 참석자들은 배 선교사가 하루 속히 석방돼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배 선교사는 지난해 11월 3일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당했으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불법선전물 유포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 관광 여행사 네이션스투어스를 운영해오던 그는 지난해 11월 3일, 관광객 5명을 인솔해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에서



탈북자 출신 윤희목 목사

평양으로 압송됐다.

북한은 “(배 선교사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반공화

국적인 종교활동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소위 ‘에리코(여리고)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그 실행을 위해 학생 250여명을 관광 목적으로 나선시에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억류되기 전 배 선교사는 북한 고아들을 돕고 빵 공장을 지원하는 등 수년간 구호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선교사는 신학대학과 신학교를 졸업하고 KAPC(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하와이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에서 제자훈련학교(Disciple Training School)를 졸업한 후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브라이언 기자

##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특진안내**

- ▶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 ▶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 푸엔테힐스 현대

# SUPER STORE

## 8월 스페셜

좋은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 2013 ACCENT GS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7,340 (STK #115126)**  
 PH HYUNDAI D/C \$889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 2013 SONATA GLS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75 (STK #702299)**  
 PH HYUNDAI D/C \$1,328 LEASE CASH \$1,0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 2013 EQUUS SIGNATURE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0,170 (STK #069499)**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000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에드윈 김  
626.610.6570

로버트 정  
323.839.7074

스티브 장  
626.513.4005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